

재활하며 더 간절해진 야구... 내년 시즌 희망 던진다

돌아온 KIA 좌완투수 심동섭

8월 전역 후 복귀 준비... 선수단 변화에 합평 캠프단 최고참 대열
실전피칭 스피드·제구력 점검...통증 남았지만 '할 수 있다' 자신감

KIA 타이거즈 좌완 심동섭이 '최고참' 타이틀을 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KIA는 지난 6일 합평-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마무리캠프를 시작했다. 2군 선수단, 2021 신인 선수로 꾸려진 합평 캠프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예비역' 심동섭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무를 마친 심동섭은 지난 8월 말 KIA 선수로 돌아와 마운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덧 올해 30대가 된 심동섭은 캠프 최고참이다. KIA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선수이기도 하다. 2010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내년이면 벌써 12년 차가 된다. 입단 동기 임기준이 어깨 부상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출되면서 KIA 2010 신인드래프트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최고참으로 오랜만에 캠프에 참가한 심동섭의 솔직한 심정은 '불편함'이다.

심동섭은 "최고참이라서 불편하고 어색하다"며 "멤버가 많이 달라졌다. (양)현종이 형도 나간다고 하고 다 동생들이다. 부담이 될 것도 같고 진짜 불편하다"고 웃었다. 많은 게 낯설어진 심동섭에게 마운드는 더 간절해졌다. 떠나있어서 알게 된 것들이다. 심동섭은 "군대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육심이 과했다. 군면제도 받고 싶었고, 도전도 하고 싶었다"며 "군대 가서 보니까 동기들이 정말 어렸다. 이들은 이제 시작인데 나는 냉정하게 말해서 야구가 내리막이다. 어렸을 때 빨리 갔더라면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입대 전 복귀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현재가 소중하고 또 간절하다. 심동섭은 "2018년에 아예 공을 못 만질 정도로 아팠다. 주사 치료도 받고 할 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됐다"며 "병원 3-4곳을 다니면서 재활 트레이너분들도 만나고 맞는 걸 찾아 나갔다. 군인 신분

이다 보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1분 1초가 아까웠다"고 지난 2년을 돌아봤다. 간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재활을 착실하게 하면서 심동섭은 희망을 찾았다. 제대 후 한 차례 실전에도 나서 자신감을 얻었다. 심동섭은 "재활하면서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제대해서 다시 야구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 아플까 봐 걱정도 했는데 게임 던지니까 설레었고, 내 볼을 던지는 것 같았다"며 "볼 스피드도 142-143km 정도 나왔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스피드에 만족했으니까,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마운드는 밟았지만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고통을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어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동섭은 즐겁게 2021시즌을 그려가고 있다. 몇 년 간 좌완 볼펜 고민을 풀지 못한 KIA 입장에서 경험 많은 심동섭의 가세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심동섭은 "현재 날씨가 추워져 피칭을 중단하고 캐치볼만 가볍게 하고 있다"며 "군대에 있으면서 야구에 간절함을 많이 느꼈다.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더 간절했고, 걱정을 많이 했다. 게임에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나왔다. 쉽지 않았지만 풀타임을 뛰고 싶다. 그럴 수 있는 몸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축구전용구장

'그린 스타디움상' 종합상



전남드래곤즈의 안방인 광양축구전용구장이 올 시즌 최고의 그라운드로 뽑혔다. 전남이 창단 이래 처음 '그린 스타디움상' 종합상을 수상했다. 2020 3차 클럽상 선정에서 K리그2 '그린 스타디움상'을 받은 전남은 최근 진행된 2020 K리그 대상식에서 종합상까지 거머쥐었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K리그1 12개 구단·K리그2 10개 구단 등 총 22개 구단 중 가장 그라운드 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기장에 주어지는 상이다. 전남의 첫 수상이다. 광양축구전용구장은 포스코 협력사인 (주)정원이 관리를 맡아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운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 사이영상 가상투표 3위

CBS 스포츠 기자 설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매체 CBS스포츠의 사이영상과 신인상 가상 투표에서 3위와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CBS스포츠는 9일 자사 기자 5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투표 결과를 기사로 전했다.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가상 투표에서 2위표 2장, 3위표 1장을 얻어 5점으로 세인트루이스(클리블랜드 인디언스·1위표 5장·15점), 게릿 콜(뉴욕 양키스·2위표 2장 3위표 2장·6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매체는 "비버가 사이영상을 탄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오히려 2위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현도 내셔널리그 신인상 가상 투표에서 3위표 1장을 얻어 1점으로 5위에 랭크됐다. 1위는 14점을 받은 제이크 크로넨워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위는 알렉 볼(피츠버그 파이리츠), 3위는 토니 곤잘레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4위는 데빈 윌리엄스(밀워키 브루어스)가 받았다.

/연합뉴스

디셈보, 오거스타 공략법은 7번 아이언

마스터스 대회 앞 연습라운드

'괴력의 장타자'로 거듭난 브라이언 디셈보(미국)가 마스터스를 앞두고 연습라운드에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유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재널은 디셈보와 함께 지난주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찾아 연습 라운드를 했던 1988년 마스터스 챔피언 샌디 라일(스코틀랜드)의 전언을 토대로 디셈보의 코스 공략 내용을 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라일의 전언에 따르면 디셈보는 4곳의 파 5홀에서 모두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공략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샷을 할 때 선택한 클럽이 길어야 7번 아이언이었다. 2번 홀(575야드)에서는 8번 아이언, 8번 홀(570야드)과 13번 홀(510야드)에서는 7번 아이언, 그리고 15번 홀(530야드)에서는 9번 아이언

으로 그린을 노렸다. 15번 홀에서는 티샷을 3번 우드로 쳤다. 510야드짜리 파 5홀을 3번 우드와 7번 아이언으로 공략한 것이다. 파 4홀에서는 샌드웨이치 아니면 피칭 웨지로 그린에 볼을 올렸다. 1번 홀(445야드), 8번 홀(460야드), 17번 홀(440야드)에서 샌드웨지를 쳤고 10번 홀(495야드)에서는 피칭웨지를 꺼내 들었다. 400야드에 육박하는 엄청난 드라이버 비거리가 이런 클럽 선택의 토대가 됐다. 3번 홀(350야드)에서는 3번 우드로 티샷한 볼이 그린을 넘어갔다. 함께 코스를 돈 라일은 "입이 떡 벌어졌다"고 밝혔다. 연습라운드라서 스코어를 적지는 않아 디셈보가 얼마나 많은 버디를 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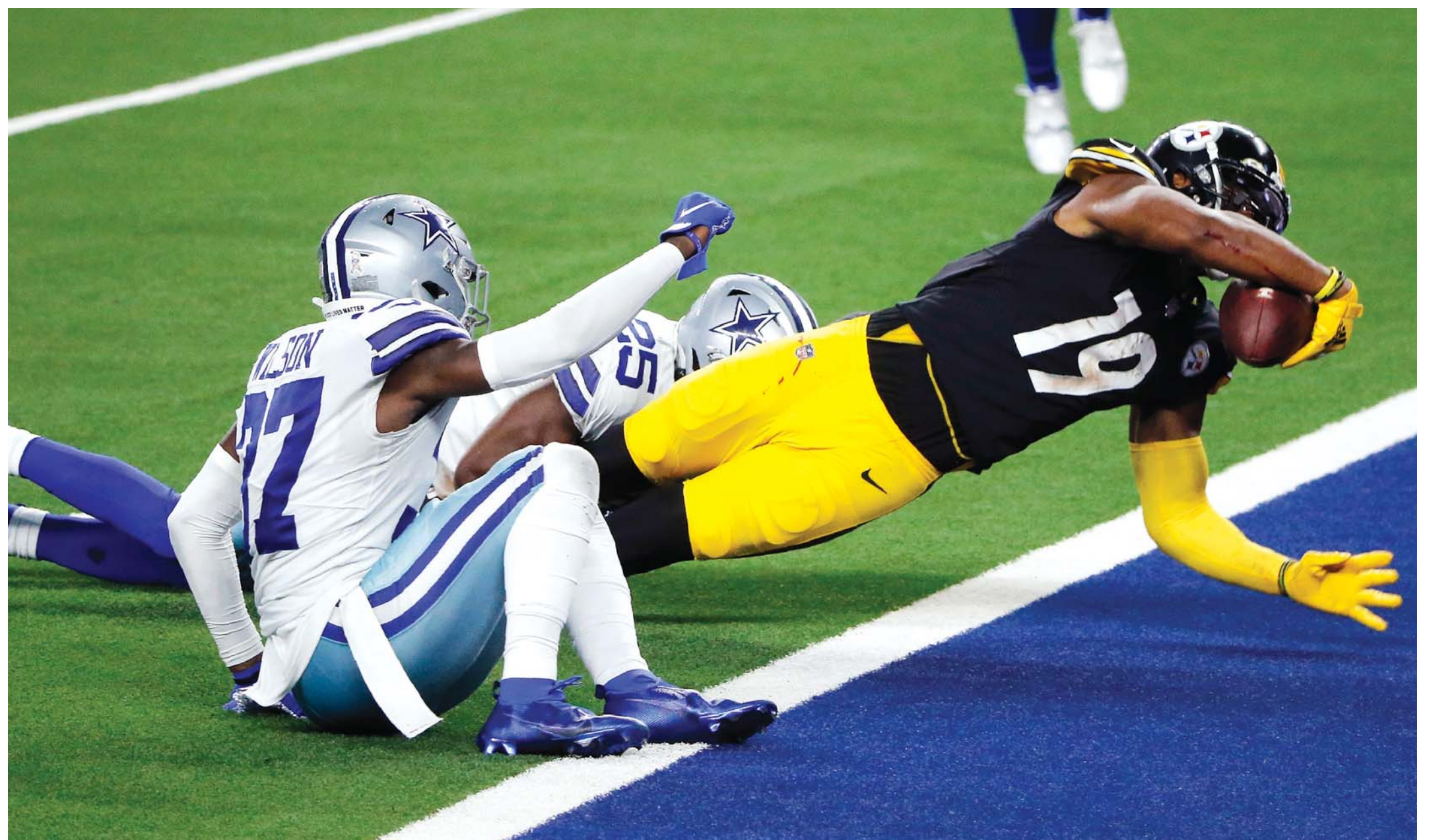
세계 160위 오르티스 PGA 첫 우승

비빈트 휴스턴오픈 13언더파 267타...랭킹 1위 존슨 추격 뿌리쳐

세계랭킹 160위 카를로스 오르티스(멕시코)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오르티스는 9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 코스(파70)에서 열린 PGA투어 비빈트 휴스턴오픈(총상금 7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PGA투어 첫 정상을 올랐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선수가 PGA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1978년 빅토르 레겔라도가 퀴드 시티스 오픈을 제패한 이후 42년 만이다. 오르티스는 멕시코가 낳은 세계 최고의 여자 골프 선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고향 후배다. 오초아의 홈 코스인 과달라하라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익힌 그는 어릴 때부터 오초아의 연습을 지켜보며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웠다. 2015년부터 PGA투어에서 뛴 오르티스는 지난 시즌 페덱스컵 랭킹 51위가 최고 성적을 올린 시즌일 만큼 정상급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도 5개 대회에서 2차례 컷 탈락했고 30위 이내에도 한 번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동 4위에 올랐던 이 대회에서 오르티스는 어떤 선수보다 빠른 기량을 펼쳤다. 특히 그는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 그리고 세계랭킹 20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의 추격을 뿌리치는 뱀살까지 보였다.

/연합뉴스



'터치다운' 피츠버그스 스틸러스의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8일 텍사스 알링턴에서 열린 NFL 경기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즈의 수비를 뚫고 터치다운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